

가정 예배 모범

- 2022_08_07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8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레위기 21장 1~ 15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1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죽은 시신과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되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신으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규례를 지킨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2) 대제사장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0-12절)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게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더라도 성소를 지키며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사명과 직무를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의복인 에봇을 입었으며,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